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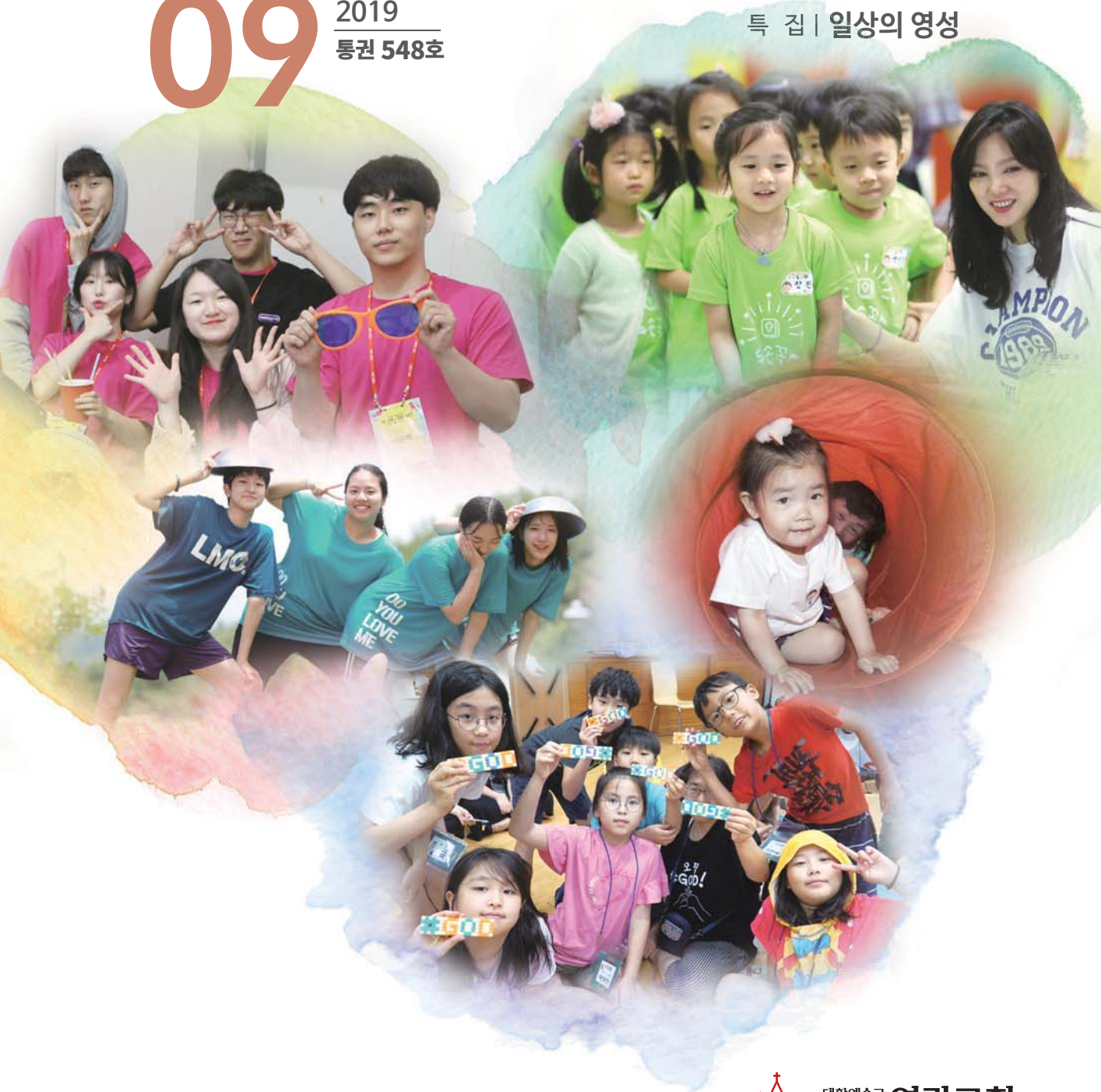
만남

09

2019

통권 548호

특 집 | 일상의 영성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 지금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 제43차 영락청년 하기선교봉사

청년부는 8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충청남도 홍성, 예산, 보령 지역에서 제43차 하기선교봉사 활동을 펼쳤다. ‘빛의 자녀들이여 행하라’를 주제로 내걸고 충남노회 중부와 남부시찰 소속 9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하기선교봉사에는 청년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 봉사자 포함 총 300여명의 영락 성도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 어린이 사역,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장수사진 촬영, 찬양선교와 마을 환경개선 작업 등을 펼침으로써 충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 사진은 하기선교기간 중이었던 8월 14일(수) 저녁 홍성 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영락교회와 현지 교회들과의 연합예배에서 영락 청년들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 연합 예배에선 본 교회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표지설명



올해도 교육부 여름 사역은 뜨거운 날씨만큼 풍성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의 생생한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만남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기적은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 김운성 02

특집 일상의 영성

가을의 기도, 가을의 독서 | 권혁일 04
일상이 온전한 영성 생활의 터전입니다 | 이대섭 07
보혈의 은혜 부여준 '기도 십일조' | 이한임 10
침묵으로도 응답하시는 주님 | 양혜성 11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2019 생명대각성 운동 | 전도부 13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의 비밀 | 이관섭 14

다음세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길 | 송동호 16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한기윤 19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옳다 | 송예은 22

땅끝까지 이르러

작은 쉼터 공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 정재훈 24
M국이 구원을 얻기까지 | 최정국 27

영락의 울타리

심 속에서 알아간 가족 사랑 주님 사랑 | 민선진 30
북한 교회에 사랑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 김영미 32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 이재향 34

야곱의 우물가

깨끗이 닦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 박대명 36
영락의 뜰에서 새신자로 다시 태어나다 | 김보라 38

문화광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박신화 40
N포 세대에서 뉴 리바이벌 세대로 | 김윤아 43
마태, 그에게 부름은 은혜였다 | 박정관 46
9월 영락문화공간 47

교회소식

제59회 산상기도회 48
영락인의 주차 5대 수칙 52
광복절 74주년 기념예배 외 53
새가족 환영 56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9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60

2019년 9월호 통권 548호

발 행 2019. 9.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 윤 성 위임목사

기적은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지 않은 길가 가게 한 곳이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나가다 보니 산뜻하게 리모델링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이 네댓 개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식당 이름이었습니다.

간판 역시 작았는데, ‘엄마 뽀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간판이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아주머니가 글자를 잘 모르시나? 그렇다면 간판을 만든 사람은 알 텐데, 왜 저렇게 썼지?’라고 여기며 ‘엄마 분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발길을 돌려 돌아오는 동안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 이름에 담긴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식당을 통해 손님들에게 엄마가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식탁을 차리는 분은 엄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먹는 모든 음식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은 엄마의 음식이요, 최고의 요리사는 엄마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엄마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음식이 최고인 이유는 우수한 재료와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 담긴 사랑 때문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분은 ‘엄마 뽀!’이고, 그래서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 뽀식’이라 이름을 붙여서 엄마의 사랑으로 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평소에 가기 힘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우 비싼 음식을 대접받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하는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식탁을 차려 주신 어머니께는 별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특별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평범한 것은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고급 레스토랑의 특별한 식사 때문이 아니라 매일 먹어온 어머니의 식탁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거나 변질되고 나면 일상의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먹는 만나에 질린 나머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민 11:4-6) 그러나 이러한 불평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한 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야말로 최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먹는 만나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벽에 별일 없이 맑은 정신과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할 때, 사모하는 영혼으로 말씀 앞에 앉을 때,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등교했다가 무사히 하교하는 아이를 맞을 때,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 차 한 잔의 여유와 평안을 맛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제 평생에 최고였어요.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이 울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께는 오늘 예배가 최고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예배를 최고로 받으셨을 겁니다.”

한때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한 적도 있어서 영락교회 성도들과 친숙한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십니다. 암 수술 후 기력을 회복한 목사님께서서는 당신이 전에 펴낸 책의 이름을 따라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란 이름으로 말씀 묵상을 유튜브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들은 기가 막힌 축복의 날입니다. 권태롭고 짜증나는 하루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사모했으나 얻을 수 없었던, 그래서 누리지 못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 하루하루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이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평범한 매일의 일상을 기적처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늘 대하는 식탁에서 차린 손길의 사랑을 느껴 감사하고,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기쁨을 느끼고, 늘 보는 성도들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늘 밟는 영락교회의 뜰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앉는 직장 사무실에서 삶의 희열을 맛본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보화를 캐내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남**

가을의 기도, 가을의 독서

기도의 계절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물론 1년 365일, 사시사철이 모두 기도의 날이지만 특히 가을이 되면,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고요히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구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 김현승, <가을의 기도> 중에서



권혁일 목사
강동·송파교구
영성·영락수련원

왜 하필 가을일까요? 이 시에서 말하는 가을은 산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서히 빛을 잃어 가는 나뭇잎이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다 덧없이 떨어지는 늦가을입니다. 시인은 침묵 속에 이때를 기다리다 낙엽이 떨어지면 드디어 언어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썩고 흙이 되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새순으로 돌아나는 자연의 법칙을 시인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 늦가을은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직감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참된 기도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유한함과 고독함이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동시에 전율처럼 울릴 때 절대자 앞에서 “겸허한 모국어”로 발화됩니다.

기도의 언어

김현승 시인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머니 품속에서 처음 듣고 처음 한 말은 조선어였지만, 그가 자라 글을 배우던 시기의 국어(國語)는 일본어였습니다. 특히 일제는 1937년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고, 1940년부터는 신문과 잡지 등



한글로 된 인쇄물들은 극히 일부만 남기고 강제 폐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모국어’란 갓난아이와 같은 그의 가장 순수한 존재와 결합된 원초적 언어, 그리고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실한 언어였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아름답게 꾸며낸 말이 아닌, 또는 형식에 맞춘 공적인 말도 아닌, 그리고 외부로부터 강제로 부여된 말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가장 진실하고 본능적인 언어인 ‘모국어’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언어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이 발화하는 “겸허한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시인에 의하면, 이 “겸허한 모국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어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듯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배우고 연습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시어를 다듬듯 조탁하여 만든 언어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자,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어입니다. 이 진정한 기도의 언어를 얻기 위해 시인이 하는 일은 낙엽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말들을 선불리 쏟아 내거나 증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겸허하고 진실한 기도의 말을 주실 때까지 침묵 속에 고요히 기다립니다.

침묵은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의 언어가 탄생하는 요람입니다. 물론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실은 그 침묵 속에서 많은 말과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묵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잡념 또는 분심(分心)과 싸우다가 지쳐서 침묵기도는 나와 맞지 않는다며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분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은 어지러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도 중에 다른 생각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들과 연결된 감정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의 원인이 파악되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흘려보낸(letting go) 뒤 다시 앞서 셋길로 빠진 지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정화되고 침묵 속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기도의 언어로 서서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매우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기도의 말이 다름 아닌 말씀(Logos)이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현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침묵을 훈련하는 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마틴 레어드의 『침묵수업』(한국 살렘)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가을의 독서와 기도

가을은 또한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식상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갈수록 종이책 대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물만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짧은 글만 읽는 오늘날에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매우 절박한 호소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전환되는 화려한 영상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과는 달리, 독서에는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글이 말하는 바를 파악하는 이해력과 글자들이 묘사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상상력은 물론, 말해지지 않은 행간의 의미까지도 탐구하는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종이와 글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세계 속으로 독자를 이끌어 들여 경험하게 합니다.

가을에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의 좋은 자료입니다. 지난 상반기 기도대각성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펴낸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의 기획 의도가 바로 독자가 말씀을 읽고, 그 독서 경험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드리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책을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가을에 못다 한 부분을 읽고, 기도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묵상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맛보신 분들에게는 헨리 나우웬의 『영성 수업』(두란노)을 권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영성 지도』(Spiritual Direction)인데,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비워 두고, 말씀을 읽고, 글을 쓰고, 기도하는 훈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책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그룹으로 함께 읽고, 나누고, 훈련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락수련원에서는 이번 가을에 ‘거룩한 독서 수련’ 2차(9월 26~28일)와 3차(11월 21~23일)를 준비하고 있으니, 오셔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사귄을 누리시도록 초대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의 배경은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이지만, 지금부터 침묵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겸허한 모국어”를, 진실한 기도의 말을, 무엇보다 말씀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만남**

일상이 온전한 영성 생활의 터전입니다

온전한 기독교 영성이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영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주로 ‘내면의 삶’(inner life)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어떤 특별하고 조용한 장소나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영성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의 영성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이나 우리의 마음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늘 함

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터와 학교에서 하는 노동과 공부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와 그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과 갈등과 아픔에도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의 삶을 늘 힘들고 어려워져서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세속적인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삶의 경험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성’과 ‘속’으로 구분하지 않는 일상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영성입니다.



이대섭 목사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영성신학 겸임교수

왜 일상의 영성인가?

말콤 머거리지(Malcolm Muggeridge)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parable)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길은 골방에서의 기도와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활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수도자로서 매일 몇 시간씩 수도원 부엌에서 영적인 가치

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그 일을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엌에서 하는 가장 일상적인 요리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가 생생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는 『하나님 임재 연습』(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에서 기도의 시간을 그 외의 시간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는 만큼 일상에서도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휴식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숨 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전 10:31).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지금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하는 일들이 내 중심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던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바꿀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드러내는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될 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부부를 그린 밀레의 '만중'. 크리스천에게 있어 영성은 이처럼 일상의 노동현장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다.

골방과 일상 영성의 조화

어떤 분들은 일상의 영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영성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골방 영성이 뿌리라면, 일상 영성은 몸통과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라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적이며,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확장과 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을 사랑하게 되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내어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갈 2:20).

우리의 영적 목표는 골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골방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경험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갈등과 아픔, 노동과 관계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차이가 없을 때, 나 자신은 더욱 더 온전해집니다. 이런 온전한 나를 통해서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온전한 영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남**

보혈의 은혜 부어준 ‘기도 십일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찬 254장)



이한임 권사
성남·분당교구

신년 기도원 집회 이후로 하나님은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였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의 보혈에 대한 약속과 능력, 그 권세에 대해 곱씹어 보는 기회를 주셨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기도를 점점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2월부터 기도대각성 운동으로 ‘1시간=1볼트’ 운동을 전개한다는 위임목사님 말씀이 이를 준비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감동이 왔다. 자연히 하루 시간의 십일조를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믿으며,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길 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교회 뒤편 개인 기도실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정에 더 많은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와 함께 야곱의 기도가 떠오르며 나의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든 뒤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된 대심방 때에 교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담대히 어느 곳이든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하게 되었다.

가정 기도의 팁은 외출 후 귀가하면 무조건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이다. 옷 갈아입고 방해받기 전 기도부터! 집에 있을 때에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주님께 나아간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점점 기도의 자리를 잡기 어려워진다. 먼저 집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보혈을 발라 나의 가정에 어떠한 악한 것도, 세균도 침범 못 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

하며, 가족 모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간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곳에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나도 듣게 되어 중보자이

기 전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와 주님과 비밀을 소복이 쌓아가는 기쁨이 더욱 충만해짐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만남**

침묵으로도 응답하시는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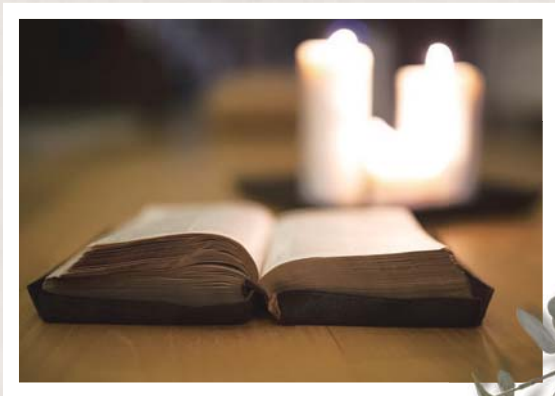
2월부터 기도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면서 매주 목요일 본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우리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심야기도회 역시 조금만 늦게 올라와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며 불이 붙기 시작했고 메마른 심령에 작은 불씨가 되어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양혜성 권사
인천교구

언제부터인가 잠자고 있던 나의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도> 책자를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시간을 채워갔다면 요즘은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된 탓인지 아무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외쳐도 여전히 응답이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문득,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수 6:10)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12바퀴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다. 이 말씀에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응답 없음을 불평하던 제 자신을 회개하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12바퀴를 도는 인내의 기도가 있을 때, 13바퀴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바퀴를 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 된 영락교회에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로 준비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대각성 운동’은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우리 영락교회에 영적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2019 생명대각성 운동

- 120일간의 전도 대장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2019 기도대각성’ 운동을 마쳤습니다. 기도를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영락 공동체의 영적부흥을 소망하는 우리는 9월1일(주일)부터 12월 29일(주일)까지 총 120일 동안 ‘2019 생명대각성’운동을 이어갑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대각성 운동’을 통해 기도를 생활화하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실천으로 영락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달에 한 명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첫 1,000명을 빠른 기간 안에 이루도록 힘쓰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 김운성 목사는 8월 18일(주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된 우리”라며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친구, 이웃, 가족 등 누구든 손잡고 교회로 인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2019 생명대각성 운동을 위해 특별금요기도회가 열립니다. 8월 30일(금), 9월 6일(금) 기도회에 이어 9월 20일(금) 기도회는 간증집회로 열립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도대상자를 정해 예배에 동행합니다.
- 본당 입구 부근에 새가족 및 방문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방문하신 분들은 본당 앞 전도부스에서 교회 기념품과 안내책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도대상자와 예배를 드린 뒤 전도한줄 간증문(사진)에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기도한줄간증문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생명대각성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한 <전도묵상집>(사진)도 제작, 판매합니다. 이 책에는 묵상자료와 간증, 예화가 실려 있으며 다양한 전도방법이 담겨있습니다. <전도묵상집>은 8월 25일(주일)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1,000원)

제공 전도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삶의 비밀

- 제자양육훈련부 2단계 양육 핵심과정



이관섭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양육핵심과정 1반 섬김리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5단계 신앙성장 양육과정

제자훈련양육부에서는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성장 로드맵 2단계 양육과정(핵심) 성경공부를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1분기 8주, 5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분기 8주에 걸쳐 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 다섯 과정 중 성경과 성령 두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네 과정을 마치고 내년에 한 과정을 더 하면 2단계 양육과정(핵심) 성경공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소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공부는 목사님들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속한 1반은 임현우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 김문자 집사는 리더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공부에 참석만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성경공부를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시간을 절제해 가능하면 일찍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아침 성경공부 시작 20~30분 전에 준비하고 성도들이 참석하면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30 청년들부터 80대 권사님들까지 열

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과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고 깊은 이해를 하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신·구약 꿰뚫는 8주 ‘성경과정’

성경 8주 과정은 ‘성경공부의 필요성, 성경에 대한 이해, 구약 숲 둘러보기 1~2, 신구약 중간 시대 둘러보기, 신약 숲 둘러보기 1~2,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기’이며, 성령 8주 과정은 ‘성령의 의미,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람 되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성령의 다양한 은사, 은사의 활용,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라’의 내용입니다. 모든 제목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와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제게 축복이 되었던 것 몇 가지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각 주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모세오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라’는 내용이 축복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율법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로는 더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의 내용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갈 것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배우다

‘성령’에 대한 공부에서 성령은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며 또 성령으로 성도가 태어난다는 내용이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통해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또 참석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지런히 공부해 삶에 적용하심으로 큰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된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남**



인기와 돈이 신이 된 시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길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존재를 경제적 기반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분에 동의한다. 부모님께 고마워하기보다 부모님을 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조국에 대한 생각 또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옥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다. 수저계급론을 잣대로 쓴다.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힘들어한다.



송동호 목사
나우미션 대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헬레니즘과 같은 시대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와 헬라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판테온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판테온의 '판'은 모든, '테온'은 신이라는 뜻이다. 온갖 신들의 세상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과 자신과의 거리감이 자신을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우상은 젊은 아이돌 연예인들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한다. 인기와 돈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역사적 사명을 가질 힘이 그들에게 있는가. 세상 속의 존재들은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적 삶을 선교사로서 사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선교적 삶을 종교적인 어휘 안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선교적 삶은 사명자로서의 삶이다. 사명자로서의 삶은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와 성경이 말하는 선교와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인 선교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아이들이 역사적 사명을 깨닫기 전에 바로 선교에 대한 삶을 말하면 종교적 선교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땅과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종교적인 어휘 안에 갇힌 선교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시대에 이제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오늘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민족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세 단어로 나뉜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세계는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속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관이다. 우리는 역사를 표현할 때 구속사라고 말한다. 문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삶이 참 불행하다’, ‘이번 생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 다시 태어나면 된다. 그래서 쉽게 자살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직선으로 간다고 믿는다. 마침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관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점점 발전해가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인 선교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다.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선교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 있고 그 세상이 구속된다는 희망

을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소명을 가진 자의 노동의 현장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 똑같은 노동의 장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노동이 저주이고 벌이다. 돈을 버는 방법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이다. 소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는다.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마칠 때 쯤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휴식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값을 치루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세상의 관점은 내가 좀 더 자아성취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불의와 타협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도 자아성취의 관점과 대학교를 강요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명을 가르치지 않는다. 방편설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들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관점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보이게 된다. 세상적 가치에서 보면 나는 존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성경을 절대판단의 가치로 세우면 영원한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알게 된다. 절대적 가치와 일시적 상대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성속(聖俗)이원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성직자’ ‘세상을 섬기는 사람-평신도’를 나눈다.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적 개념이다. 성속이원론으로 세상을 단절하고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소명은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이루어진다. 1차 소명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차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 모두가 성직을 살고 있다는 인식으로 재정과 재능을 주님 위해 쓰는 훈련 필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악은 목사와 사역자들이 모든 사역을 독점한 것이다. 만인제사장론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다. 어디서 뭘 하든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구하는 직업만 아니라면 세속적인 직업은 없다. 그러므로 어디서 섬기든지 우리가 선 곳이 성소이고 성지이다.

지금은 실천적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다. 우리 모두가 성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재정을 교회에,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합당하도록 쓰고 있느냐는 것이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사도로 보내신 것이다. 관계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교의 타킷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다문화·다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선교도 다중심 선교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다. 여기서 저기로 보내는 선교



사, 나가는 선교사에서 모두가 가는 시대로 바뀌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것이 잘 내재되고 잘 겸비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도 주일중심이 아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이니까 모두가 선교사이다. 단기선교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일상선교가 중요하다. 미래 선교의 방향은 보편성, 총체성, 공공성, 일상성이다. 오늘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탑재해야 한다. 사는 것이 곧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분리와 구별하는 것으로 써의 선교적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육신적 삶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필요하다. 기독교적 용어를 쓰고 종교적 행위를 해야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는 공공성도 있지만 은닉성이 포함된다. 세상에 숨어들어가 녹아들어가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한다. **만남**

“DO YOU LOVE ME?”

우리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여름 고등부수련회(7월 25~28일) ‘DO YOU LOVE ME?’는 제게 여러 의미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제가 진정 주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부에 오기 전까지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중3 때는 예배에 자주 빠지기도 했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는 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도 예배만 드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형들을 따라 영고찬(영락고등부찬양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여전히 너무나도 조그맣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를 향해 백현준 전도사님, 이건희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 다른 교회로 떠나신 이사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실 때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사랑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고2가 되어 전재량 전도사님을 만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은 뒤 생각지도 못한 학생회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임원 생활이었지만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윤
고등부 2학년
학생회 부회장

수련회 장소(충북 충주 한마음수련원)에 친구들이 도착하면서 여름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고등부 담당이신 노대웅 목사님은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낮은 길로 가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공동체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체 훈련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제기차기, 공 튀기기, 파이프로 공 옮기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대화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함께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한복음 3:16)라는 제목으로 노대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는 예배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Love never fails’라는 찬송이 제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라는 가사에서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 돌리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고등부에서 느끼게 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체조를 하고 학년별 집회에서 백현준 전도 사님의 아프리카 사역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생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조금 우왕좌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함께 준비한 대로 게임이 진행되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미리 준비한 양말 던져서 물병을 맞추는 게임이나, 의자에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앉는 게임 등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조원들끼리 단합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너무 재미있게 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 말씀에서 노대웅 목사님은 요한복음 13장 유다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돈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과거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저를 깨달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자유롭게 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존X침’(요한과 함께 침)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진행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이 노심초사했지만 기적처럼 비가 멈추었습니다. 덕분에 노래방부터 시네마존, 수면존, 게임존, 스포츠존 등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존X침과 물놀이를 한 뒤, 선생님들께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눈물 젖은 고기를 구워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7)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게 오지 않는다” “아가페(하나님의 사랑)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신앙은 한 번에 점프하지 못한다. 콩도 새싹을 키우고 가꿔야 열매가 열리는 만큼 신앙 역시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가꾸고 물을 주며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회 시간에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어린양이었던 나에게도 사랑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 주일 예배로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말씀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주신 권사님, 집사님, 수련회

전부터 사랑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재밌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집회마다 항상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워십댄스반과 호산나찬양팀, 기꺼이 사랑으로 임해준 조장 친구들, 조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소중한 추억과 더 좋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미디어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손길 덕분에 이번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양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어린양 친구가 있다면, 저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 열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지 말라고, 비록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겠지만 너무 많이 돌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남**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옳다



송예은
중등부 3학년
여호수아찬양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Break Through(돌파)'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다. 중등부에서 갖는 마지막 수련회라 더 특별하기도 했고, 아쉬웠다. 나는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부터 '이번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수련회에 참여했다. 수련회 일정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야외활동과 물놀이 시간에는 비가 그쳤다가 야외활동이 마무리된 저녁 시간에만 비가 왔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해인 것 같다.

첫째 날, 야외활동을 하며 협동심도 기르고 조별 점수도 넉넉히 얻었다. 목사님께서 다수의 선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설교해주신 후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고 그만큼 간절했다. 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나에게 마음의 진동이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다.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난 후 찬양으로 마무리했다.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그 찬양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다.

둘째 날에도 조끼리 한 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코너학습을 했다. 오후에는 물놀이가 있었는데, 너무 더운 날씨 탓에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었다. 도착하자마자





물에 들어가서 놀았다. 서로 물에 빠지고, 빠뜨리며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간식도 먹으며 오후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한 후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엘리야가 기도 덕에 세상을 돌파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첫째 날보다 정말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마지막 수련회라서 더 소중했던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집회 시작 전, 종이에 적었던 20개 가까이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니 나의 생활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고 아래에서 후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련회 준비와 진행에 정말 많은 힘을 쓰시고 제일 많이고 생하셨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특별해지고 더욱 몽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마지막 집회가 끝난 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소중해진 3학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다.

마지막 날 달는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온 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수련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선택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매사에 기도드리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만나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강해지고 성장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는 친구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라고 물어본다면 친구들에게 답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아멘! **만남**



작은 쉼터 공간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 외국인 예배쉼터의 전략적 활용



영락교회를 거쳐간 몽골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몽골 현지(울란바토르)에서 현지 모임을 갖는다.

사진제공 선교부



정재훈 집사
용인·화성교구
선교부 외국인예배 총괄팀장

우리 교회 선교부 외국인예배에는 네팔예배, 중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몽골예배, 이렇게 4개의 예배가 있어서 각 민족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들을 통칭 '이주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와 공부하러 온 유학생으로 구분합니다.

선교부 외국인예배의 목적은 예배, 양육, 전도 그리고 파송에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자국민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며 현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예배의

비전은 네팔, 중국, 러시아, 몽골 복음화를 위한 씨앗을 가꾸는 것입니다.

외국인 쉼터는 전통적으로 '갈 곳 없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심신을 쉬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쳐하는 곳'으로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 일종의 구제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외국인 예배에 오는 성도들은 기술직 등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단기간 일을 하는 분들, 대학생 및 언어연수 비자로 입국하여 학업과 일을 겸하는 성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쉼터도 이제 전통적 정의의 '구제를 위한 공간'을 벗어나 균형 잡힌 구제와 함께 앞에 열거한 예배, 양육, 전도, 파송이라는 4대 목적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 쉼터

답십리에 자리한 몽골 쉼터는 몽골예배를 인도하시는 몽골인 목사님이 거주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모여 성경공부와 함께 교제하는 양육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쉼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주변으로 이사하고 살면서 영락교회 '몽골성도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 관광, 치료, 단기 일자리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몽골인들이 쉼터 주변에 사는 지인의 집 또는 쉼터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전도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들로 볼 때 몽골 쉼터는 찬양연습이 가능하고, 외부인 숙박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팔 쉼터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주변에 자리한 네팔 쉼터는 네팔인 사역자가 거주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팔예배 성도들은 다른 예배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일터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주일성수를 위해 토요일에 쉼터로 모이고 주일 저녁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니, 예배 목적의 쉼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10여 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네팔 음



몽골 쉼터에서의 예배 모습



네팔 쉼터에서의 교제

식을 만들어 먹고 10시부터 성경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니 양육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지방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네팔인 동료의 주말 동안 공장 기숙사에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하러 가는 대신에 서울 구경을 가자며 쉼터로 또 예배로 인도하니 전도의 목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팔예배쉼터’는 우리 교회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카레 등 특유의 향신료가 들어가는 음식 조리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최소 1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쉼터



중국 쉼터의 나눔과 기도

동작구 상도동 송실대 건너편에 자리한 중국 쉼터는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시는 중국인 사역자가 거주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예배 성도의 비중을 보면 학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와 역사, 전통, 명성 등을 보면 중국어예배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쉼터가 예배나 전도보다는 성경공부 등 양

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나,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쉼터

러시아어예배 구성원은 대부분 고려인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한국에 정착했으며, 생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여 인도하는 새 신자들도 비슷한 분들이다 보니 쉼터가 없어도 4대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는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이 시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어 예배 성도와 한국인 봉사자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4개의 예배 중 외국인 쉼터의 역할 변화를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은 몽골예배입니다. 한국에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가 몽골 쉼터를 알게 되고 이곳에 들러 교제와 성경공부를 하고 주일에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 수는 대략 연간 20여 명 정도입니다. 영락교회를 거쳐 간 몽골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울란바토르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락몽골예배를 찾습니다. 방 1개가 있는 작은 쉼터 공간을 너무나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정 놀랍습니다. **만남**

200년 선교역사 지닌 M국이 구원을 얻기까지

- 제21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를 다녀와서



최정국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제21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 단장

제21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이하 인해선)를 8월 4일부터 9일까지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여호수아 9장 27절)'라는 주제말씀을 가지고 M국(황관중 선교사)으로 다녀왔습니다.

인해선은 기존 비전트립 등 현지 선교사님들의 안내로 선교지를 탐방하는 형식에서 발상을 전환해 선교사님들을 직접 지원해드리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지원, 수리, IT 도구활용, 다양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들을 교육시켜 선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선교봉사입니다. 그동안 IT/MEDIA교육, MK(선교사 자녀) 캠프, 이·미용봉사, 의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8명(자녀 포함)의 선교사님을 섬겨드리며 현지의 열악한 생활환경 등에 치진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쉼과 위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종합선교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참가하는 성도들도 다양합니다. 해마다 각기 다른 세대와 가족이 40~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올해는 모두 38명이 함께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선교봉사단원들 또한 선교적 비전을 이어가며 참여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녀온 M국은 기독교 선교역사가 200년이 된다고 하지만 뿌리 깊은 불교문화 등 여러 상황으로 현재도 기독교 인구는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M국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19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생생한 선교현장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 선교사님께서 인터넷해외선교봉사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꿈 같은 일주일'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지 않네요. 수돗물을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과 아무리 써도 끊이지 않는 전기에 감격합니다. - 강기현·복애라 집사부부

MK팀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기뻐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MK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의 고충은 좀 알고 있는 터라 아이들을 고향 안아주며 사랑 고백하며 지내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네요.

- 이미영 집사

M국 선교사님들이 열리지 않는 그 땅을 위해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안이하게, 무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정인기 집사

컴퓨터 강의, 의료와 미용으로 섬기는 분들 하나하나의 손길에 사랑과 감사와 수고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음이 느껴집니다. 캠프가 너무 짧다며 '20박 21일'로 해달라는 아이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네요.

- 백선헌 집사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

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운 기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최정국, 박찬일 집사

섬기러 갔는데 도리어 섬김을 받고 왔네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신 선교사님의 비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M국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장운연 권사, 최종영 집사

선교사님들이 더 빛나도록 가꿔주시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천국소망을 품도록 애쓰시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무익한 종을 보내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이한준 집사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의 길을 걷는 것이 M국 사람들의 인생관이어서, M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땅 끝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신 M국의 어느 선교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 김형훈, 최영주, 김수아, 김민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시는 선교사께



힘과 용기와 기도의 동역자임을 알리고 싶었지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내 믿음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 임경희, 이영환

이 넓은 세상, 내가 모르는,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는 너무 많습니다. 그 시작을 인터넷해외선교로부터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박근우 집사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M국에 작은 자의 미약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M국의 벽찬 감동을 산 넘고 물 건너 대한민국의 땅까지 가슴에 품고 왔기에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조원형 집사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함께 참여한 아들 준모의 활약을 보고 들으며 준모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도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못난 행동이, 저의 부족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드시게 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에 기뻐하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참 기쁘고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 양승관 집사

인해선을 통해 함께하시는 기도의 동역자의 선한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M국에서 선교사님들 사역의 어려움을 함께 느꼈고, 언젠가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함께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김신희 집사

21차 인해선의 단원들이 M국을 밟았을 때,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와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 땅의 선교사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명춘 안수집사(의료선교팀)

이번 M국 인해선은 황폐한 사막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M국은 뿌리부터 불교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지 그의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 소남호 집사

이번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먼저 노트 북 등 여러 선물에 놀라고 감사했고, 교육 받는 동안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했고, 의료와 미용으로 섬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MK부서입니다. 아이들 관련 설문지 요청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을 작성하면서 MK부서 분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 황관중 선교사

쉽 속에서 알아간 가족 사랑 주님 사랑

- 제9회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를 다녀와서

민선진 집사
종로·성북교구

태풍의 영향인지 파도가 상당히 높았고 나는 튜브에 의지해 그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머니 속 물건을 떨어뜨려 물안경을 쓰고 잠수해 찾기 시작했다. 튜브 보트가 뒤집히고 어른들도 넘어질 만큼 파도가 거칠었지만 겨우 1미터 물속은 놀랄 만큼 다른 모습이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주기적인 물살과 먹먹하게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만이 이곳이 바다임을 잊지 않게 할 만큼, 의외로 고요했다. 거친 파도를 잠시 잊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있을 때, “그래, 그렇게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만 쉬러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한가족 한마음 가족수련회(이하 한마음수련회)에 접수하는 내내 떠나지 않았다. 다들 해외선교, 국내선교, 수련회 봉사

등등으로 바쁜 여름을 보내는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수련회 내내 들었고, 휴가기간 봉사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보면 미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마음수련회를 보는 나의 좁은 시야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첫 시간 여는 예배에서 봉독한 시편23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쉬 만한 물가’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한마음수련회는 참으로 ‘쉬 만한 물가’였다. 그 단어처럼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실내수영장과 설악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겼고, 처음 가본 추양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인 듯하지만 기품 있고 시원한 ‘푸른 풀밭’이었다. 매 끼니 때마다 나온 식사는 평범한 가정식이지만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나 맛나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만족했다. 식사 사이마다 간식을 챙겨주시니 참으로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손에 이끌려 사육되는 양떼들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묵상할 수 있었다. 아내들의 매 끼니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즐거움의 환호와 휴가 후 늘어나 있을 몸무게를 걱정하는 푸념을 번갈아 듣는 것도 식탁에서의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운영 스태프의 섬김이 이루어낸 쉽만이 한마음수련회의 전부가 아니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전후의 자녀를 둔 3040 부모들이었고,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자리에 와 있음을 노련한 상담부 가정사역팀 일정표에서 알 수 있었다.

메인 순서로 부부특강1은 MBTI(성격유형 검사) 분석을



가족과 함께(왼쪽 첫번째 필자)



통해서 가정에 앞서 부부로서 남녀로서 서로를 알아간다면 이해하고 배려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귀한 시간이었다. 열아홉 쌍의 부부 모두의 분석결과를 함께 보며 진단하고 코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다. 매사에 보증 수표이지만 딱딱한 내가 틀을 싫어하고 감정이 풍부한 아내와 왜 그렇게 부딪히는지 내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어쩌면 너무 다르지만 꼭 맞게 달라서 마치 퍼즐의 상대 조각처럼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묵상했다.

부부특강2에서는 대심방 때 따뜻한 위로의 설교를 기억에 남긴 강승훈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도전을 일으키는 강렬한 특강을 하셨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축을 쌓는 과정 같았다. 사이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스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존재이야기였다. 남녀가 각각 그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꿈의 성취를 위해 서로가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삶으로 풀어내주셔서 울고 웃으며 그 이야기에 따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은 가정공동체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밤에 알 수 있었다. 우리들이 영락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가꾸어야 할 주체라는 사실이었다. 열아홉 가정은 막내아이 나이를 기준으로 4개의 조로 구성되었는데, 만나고 보니 우리는 모두 교회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있었다. 평소라면 서로 만나기 참 어려운 가정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대형 교회의 거대함 속에서 부서의 벽에 나뉘어 외

로웠던 우리 3040은 이렇게 조직의 경계를 벗어나 서로 교체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좋았다. 우리는 수련회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영락이라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기 어려웠던 우리는 수련회 마지막 밤, 장기자랑을 통해서 어느 집 사춘기 소년이 찬송가 피아노 연주를 스타카토로 그렇게 경쾌하게 칠 수 있는지, 어느 집 초등학교 아이가 3*3큐브를 1분 만에 완성하는지, 어느 집 6세 아이가 그렇게 암송을 잘 하는지 알게 되었다. 연예인 모자 쓴 엄마의 열정과 말도 안 되는 마술을 입담 하나로 재밌게 이끌어가는 아빠를 보았고 이제 그들을 알게 되었다.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 가족 아닐까. 영락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사랑하며 한 가족이 되기를 꿈꾸며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는 다시 인생의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야겠지만, 물속의 고요함과 온몸을 감싼 따뜻한 바닷물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잘 쉬었다. 참 쉽이었다. 비록 새로 산 고프로 수중 액션카메라를 설악해변 바다 속 모래에 고이 묻어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대수인가. 일상이라는 액션을 함께 살아가고 담아낼 내 가족과, 영락가족이 함께 손잡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상담부 가정사역팀과 강승훈 목사님, 그리고 이름을 모두 나열하지 못 할 만큼 많은 교역자님들과 스태프들께 2박 3일간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글을 맺는다. **안녕**

북한 교회에 사랑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섬기는 사랑부는 운동, 언어, 자폐 등의 장애를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1대1 맞춤 교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성경공부를 한다. 학생들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절기에배 때마다 연극, 워십 댄스 등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매주 토요일 사랑부 열린주말학교는 댄스, 난타, 미술, 음악 그리고 원예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향상 및 신체기능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활동시간을 갖고 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해마다 사랑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큰 행사다. 올해는 지난 8월 9~11일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출발을 위해 김포공항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가니 형광색 티를 입은 사랑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자원 봉사자 120여 명이 배웅하는 부모님들과 환한 얼굴들로 인사를 나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 3대의 버스(갈릴리, 가나안, 엠마오)에 나눠 타고 숙소인 명성수양관에 도착했다.

여는 예배와 해수욕, 제주 명소 관람으로 이어진 수련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는 실행팀과 담임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시종 기쁨이 넘쳤다. 영성의 밤으로 드러진 예배에서는 임평호 목사님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통일’ 주제로 말씀하셨다.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처럼 사랑부도 세워질 것을 그려보며 복음팔찌도 만들었다.



김영미 집사
종로·성북교구
사랑부 교사

둘째 날 경건회와 식사를 마치고 방문한 성서식물원 비블리아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행들 모두 즐거워했다. 유대인 복장을 한 목사님께서 식물원을 돌며 성서에 나오는 감람나무 등 1200여 종의 식물을 실감나게 설명해주셨다. 기둥모양의 현무암에 파도가 높게 치면서 부딪치는 주상절리의 장관을 감탄하며 저마다 환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랑부 정민이가 출발할 때부터 엄마 선물을 사겠다고 노래하더니 귀여운 돌하르방 세트를 사며 웃음꽃 가득한 얼굴로 일행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다. 명소를 보고 나오니 봉사팀이 제주 특산인 오메기떡과 음료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바람이 세게 부는 마방목지에 이르니 사방이 푸른 초원에 저만치 말들이 한가로이 서있다. 웬지 말들을 보면 평화로와 보인다. 그 사이 저쪽에서는 여영, 두희, 재성, 상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여 모두 웃음이 터졌다. 너무도 시원하고 즐거웠던 모양이다. 우리 사랑부가 있는 곳은 항상 즐



거음이 넘친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돌아왔다.

저녁식사 후 화합의 밤(분열을 넘어 화합으로)을 준비하며 숙소 앞 큰 잔디밭에 모두 모였다. 선생님들이 멋지게 찬양을 인도하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맘껏 부르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목사님이 남북이 분단되고 주변이 분열된 것들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고 하셨다. 꼭 복음통일이 되어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셋째 날 오전 절물자연휴양림 일정은 비록 쏟아지는 빗속을 우비를 입고 둘러봐야 하는 난관이 있었지만 울창한 삼나무 숲길을 걸으며 평소 볼 수 없었던 멋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음에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닫는 예배에서 목사님은 ‘심는 것과 거둔 것’(갈 6:8~10)을 주제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고 기뻐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셨다. 닫는 예배를 시작할

무렵부터 더욱 세차지는 빗줄기로 오후 일정 하나가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우리 사랑부가 어떤 곳인가! 이정현 총괄팀장님의 진행으로 자원봉사자들과 방장, 반장 그리고 준비팀원들의 소감 발표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솔직한 소감 발표는 역시 사랑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다.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며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선생님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획을 하고, 인쇄물을 만들고, 일정을 예약하셨다. 무엇보다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로 단단히 준비하신 것이 가장 감사하다. 찬양 선생님들과 최고의 식사를 준비해주신 권사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사랑부는 이제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할 일이 생겼다. 복음통일이 되어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면 첫 번째로 사랑부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 친구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만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 강서·구로·양천교구 6구역장 원인자 권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11~13)

“이 말씀은 제게 있어서 믿음의 참고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무엇인가’는 구역을 돌보는 사명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40대에는 구역 권찰로 강서구 등촌동 구역을 섬기도록 훈련시키시더니,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를 섬기기 시작할 때는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까지 주셨습니다. 7, 8년 전부터 김포에서 구역을 섬기는 중에 내게 주신 사명을 힘들어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본이 되셨던 구역장 고 유춘희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구역 가족들의 어려운 살림을 세심히 들여다보며 매달 어렵게 모은 한 달 용돈으로 쌀과 가스를 채워 주며 사랑과 관심까지도 담아 주시던 구역장님과 10년을 함께했습니

다. 그때에 함께 배우며 가르침을 받았던 3명의 권찰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셨던 유 구역장님을 본받아 지금은 여느 구역장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서고 있습니다.”

6교구 6구역장 원인자 권사님은 지나온 길을 이렇게 잔잔히 이야기했다.

원 권사님은 구역 식구들과 한 달에 한 번 구역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특별히 집밥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다. 독신 세대가 많은 이 구역에서 집밥을 나누며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원 권사님의 생각이다. 구역 식구들은 그로 인해 하나가 되었고, 사랑스러운 한 가족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원 권사님은 또 지난 34년여를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해 오고 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어느 한 쪽도 소홀함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주어 이야기한다.



강서·구로·양천교구 6구역 가족들.
한 달에 한 번 구역예배를 드릴 때는
'집밥'을 함께하며 신앙의 교제를 든든히 한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광범위한 교회의 스케줄 속에 소외받는 성도들의 갈 길은 누가 잡아줍니까. 소그룹이, 특히 구역활동이 작은 교회가 되어 그들의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어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는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원 권사님이 섬기는 6교구 6구역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원 권사님 가정과 3명의 구역 식구들의 가정에 텃줄을 열어 주시어 7년여를 간절히 기다려오던 자녀와 손주를 보내주셨다.

원 권사님은 구역 식구들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한다. 구역예배를 통해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모두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그 이상으로 이루어주심을 경험했다. 새벽 6시를 정해 구역 식구들과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21일간 기도하던 중 그것마저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보았다. 원 권사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모두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구역 가족인 어느 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세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내 계획은 너무 무의미했음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원 권사님은 “구역예배를 통해, 기도하며 나눔으로써 이런 축복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다”고 살며시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저희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많은 성도와 나누고 싶습니다.” **만남**

취재 이재항 기자





깨끗이 닦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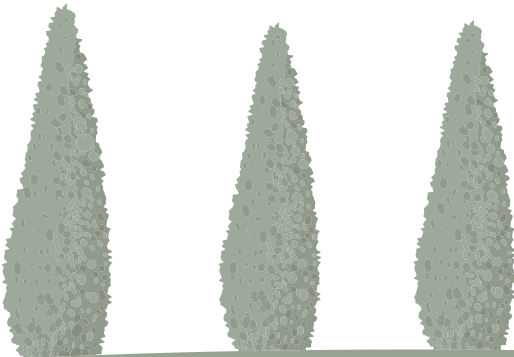


박대명 은퇴안수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믿음의 대를 이어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둘째 수요일, 저는 2부 기도회에 참석하러 오후 4시쯤 교회에 왔습니다. 120일간 진행될 ‘기도대각성운동’과 금요기도회 김운성 목사님 말씀을 기대하며, 베다니광장을 걸었습니다. “내 평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라는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데, 블록 이음새에 걸려 파당 넘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비원이 저를 발견해서 백병원 응급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X-ray와 CT를 찍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 전도사님이 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 이마에 피, 얼굴에 상처”라고 하시며, 저를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교구 목사님께서도 심방을 마치시고 오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베다니찬양대 대장님과 총무님, 이해구 집사님, 은퇴안수집사 회장님께 문자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이 컸습니다. 얼굴 상처는 흉터가 생기니 성형외과로 예약을 해놓겠다고 해서 퇴원 후속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온 후, 침대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수요일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두 손목이 부러진 것같이 너무 아픕니다. 무릎은 멍들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얼굴은 상처가 나서 흉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다른 여러 기도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안한 잠을 주셨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쓰라려서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흉터가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자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아내가 참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제 뉘까지 받아 주십시오.” 아내는 밤 11시쯤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를 하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어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나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제 무릎이 가벼웠습니다. 간호사가 얼굴에 붙여준 거즈를 뜯는데,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얼굴이 거울에 보이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와~ 와~ 여보! 여보!” 크게 부르며 뛰어 나갔더니 아내는 나를 꼭 안으며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당신을 만져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합창이라도 하듯 “할렐루야! 아멘! 아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봉사관에서 우연히 교구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시며, “더 예뻐지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나은 모습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보여드리러 가는 중인데 마주치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영락의 뜰에서 새신자로 다시 태어나다



김보라 성도
성남·분당교구
갈릴리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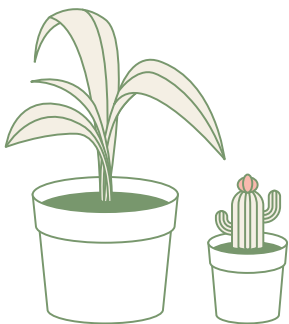
나는 모태 신앙인이다

나를 비롯해 5남매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 아버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착한 자녀들이었다. 주일이면 밥도 안 사 먹고 버스도 안 타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갔다. 칭찬받는 기쁨에 열심히 전도지도 돌렸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 때는 청년회 회장(우리 교회는 어려운 동네라 따로 대학부가 없었다)을 맡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는 로열패밀리였다. 다른 청년들이 나를 로열패밀리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내가 처신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힘들었다. 당시의 내 신앙 모습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생활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듯, 습관처럼 해온 생활이었다.

아버님이 은퇴하신 뒤 나의 신앙은 생활에서 의무로 변했다. 목사님이었던 때 부를 도와 너무도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했다. 늘지 않는 교인, 약해져 가는 신앙...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성경 뒤쪽에 쓰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첫 번째로 기록된 기도 제목은 “애 아빠의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났다.

나는 새 신자다

2018년 8월 중순부터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새로 맞은 나의 새로운 생활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체험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예전엔 예배시간 1분 전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축도 후 목사님과 악수하는 첫 신자였다면, 지금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 들어가고 예배 후엔 목사님과 악수하는 거의 마지막 신자다. 교회 마당이 이렇게 공기가 좋은지,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있는지, 도심 한복판의 하늘이 이리 파랗고 예쁜지, 나날이 새롭게 경험한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교회와 신앙은 그냥 부족함 없는 물 같았고, 갈증이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의 나는 성도



가 아닌 더 형편없는 종교인이 되어 갔다. 주일을 안 지키면 불안하고 지키자니 마음 불편한 종교인이 바로 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다가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TV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내가 끝까지 들었다. 얼마 후 우연치 않게 또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았고 아내와 함께 큰마음을 먹고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

교회의 마당과 카페 그리고 제일 마음이 편한 본당, 친구의 권유로 들어간 찬양대. 그토록 들어가기를 거부하던 찬양대가 너무도 큰 행복과 은혜로운 생활을 준다. 찬양 연습을 하면서 흐르는 눈물과 예배 때에 부르는 찬양 중의 묵LEM,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예배시간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난 철없이 마구 뛰노는 망아지 같은 새 신자가 되었다. 보고 싶은 주님,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

아내의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다. 연애하는 이들이 하는 대사, 당신이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 달라는 유치한 대사가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글을 쓰면서 흐르는 눈물, 이것이 기쁨이 아닐까?

영락교회에 처음 왔을 때, 느린 걸음걸이로 교회에 들어가는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 서로 밝게 웃으시며 악수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 치질이 심해서 예배시간에도 통증 때문에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없어 몸을 비비 꼬며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예배드릴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고 치핵이 사라졌다.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신기한 체험이었다.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것과 같은 설렘으로 교회가 나오고 있다. 회개와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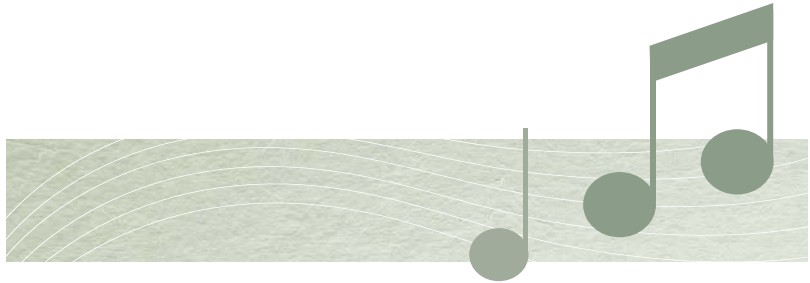
나는 5남매의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나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보다 목사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즘 나는 목사님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 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

나는 영락교회에 객으로 왔고 객으로서만 출석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나의 집이고 나를 위해 예비된 교회라고 믿으며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다. 지금도 그저 영락교회에 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축한 하루였다. **만남**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찬송가 314장)

- 엘리자베스 프렌티스(E. P. Prentiss, 1818-1878) 작사

하워드 돈(W. H. Doane, 1832-1915) 작곡



지난 7월 28일 주일예배 시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불렀다. 요한복음 21장 15~17절 말씀으로 ‘사랑을 근심하다’라는 제목의 김운성 목사님 설교 후 부른 찬송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찬송했다.

이 찬송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당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시’로 그 불행을 이겨낸 승리의 노래이다. 작사자 프렌티스는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회중교회(회중정치로 운영하는 개신교 교회) 목사인 에드워드 페이지슨의 8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페이지슨 가정은 철저한 청교도 신앙가정으로 복음주의적 신앙과 박애정신, 그리고 선교열정이 넘치는 집안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어려서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의바르며, 동정심이 많은 소녀였다. 이런 성품을 기반으로 그녀는 아동문학가가 되어 어린이를 위한 책을 썼으며, 가정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책들을 만들었다. 1838년 자기 집에 조그만 여학교를 개설하고 ‘안식일 학교 학급(Sabbath-school class)’을 운영했으며 1840년에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이사해 소녀기숙사 사감이 되기도 했다. 1845년 27세의 엘리자베스는 절친한 친구의 오빠인 조지 프렌티스와 사랑의 편지를 나누었고 결국 그와 결혼했다. 그 후 이 부부는 메사추세츠 베드포드에 정착해 남편 조지는 남(南) 삼위일체교회(South Trinitarian Church) 담임목사가 되었고,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은혜로운 목회 생활을 했다.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작사가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그러나 이들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다. 1856년 미국에 붙어 닥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인 자식을 잃은 그녀는 절규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시는 분인가?’ 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을 한탄했다. 이때 남편 조지는 아내를 이렇게 위로했다. “여보, 우리가 이해 못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오. 이제껏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시지 않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이들은 분명 더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화로이 잘 있을 것이오”.

이런 불행이 있은 후 엘리자베스는 아래와 같은 시 한 편을 쓰게 되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Hear Thou the prayer I make on bended knee.
This is my earnest plea: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Once earthly joy I craved, sought peace and rest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This is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More love to Thee,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시가 발표된 것은 엘리자베스가 하늘나라로 간 지 11년 뒤의 일이다. 남편 조지는 1889년 이를 발견해 발표했고 찬송 작곡가 하워드 돈이 이 시에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 1870년에 출판한 ‘헌신의 노래(Songs of Devotion)’ 379장에 ‘MORE LOVE TO THEE’ 라는 곡명으로 발표했다. 하워드 돈은 전문 작곡가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한 사람이지만 2,000곡이 넘는 찬송을 작곡했으며 특히 화니 크로스비(F. Crosby, 1820~1915)의 시를 많이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 P. Prentiss, 1856

보통으로 92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MORE LOVE TO THEE: IRREG.

W. H. Doane 1870

1. 내 구 주 예 수 를 더 욱 사 랑
2. 이 전 언 세 상 나 기 뵈 었 어 도
3. 이 세 상 떠 날 때 찬 양 하 고

드 러 비 는 말 들 으 소
엿 지 숨 내 기 하 는 말 오 직 예 수 세

내 진 정 소 원 이 내 구 주 예 수 를
다 만 내 비 는 말 내 구 주 예 수 를

더 욱 사 랑 더 욱 사 랑 더 욱 사 랑 아 멘
더 욱 사 랑 더 욱 사 랑 더 욱 사 랑

소림과 송성

작곡했다(오소운, 21세기 찬송가연구 581~58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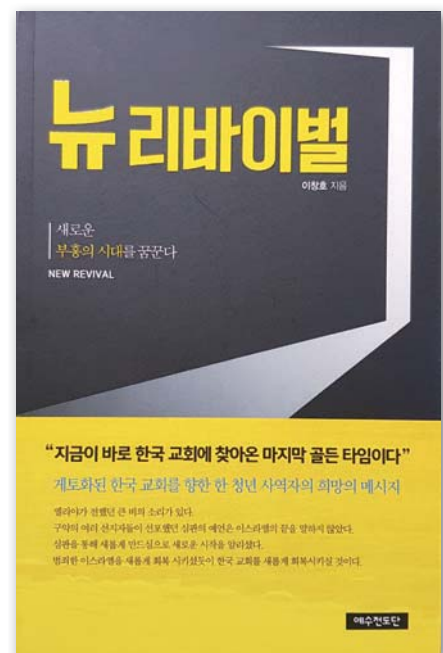
필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필자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박종윤 연세대 종교음악과 교수이다. 당시 그분은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 지휘자였으며 합창음악을 무척 좋아하셨다. 필자도 교수님의 요청으로 호산나찬양대에서 6개월 정도 봉사한 기억이 있으며, 합창지휘를 전공하게 된 것도 박종윤 교수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박 교수는 40대 초반에 루게릭(ALS)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고, 5년 정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10년 더 사시다가 5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필자는 선생님과 학교합창단뿐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중창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찬송가를 특히 좋아하셨다. 지난 2010년 박종윤 교수 10주기 추모음악회를 필자가 지휘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부른 찬송가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다. 그 당시에는 추모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지만 지금 찬송의 배경을 생각하며, 또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니 더욱 더 은혜롭고,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뜨거운 감동이 있다. **만남**

N포 세대에서 뉴 리바이벌 세대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꿈꾼다 「뉴 리바이벌」

나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현재 노량진에서 국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다. 사회가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N포세대'가 있다. 이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하지만,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미 많이 대중화되었고 그 의미가 청년을 상징하는 많은 것 중의 하나로 고착되었다. 이 용어는 본래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5포세대(3포 + 집과 경력), 7포세대(5포 + 취미와 인간관계)처럼 꾸준히 더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흔히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말하하는데, 우리 청년세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한대로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 제목을 보았다. '청년세대 결혼·출산 포기 이유는... 관찮은 일자리 못 얻어서'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어떤 일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을 곰곰이 살펴보니, 그 원초적 시작이 '사랑'보다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강제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 즉 '뉴 리바이벌(새 부흥)'이 펼쳐져야 하는 골든타임 시점에서 사랑보다 물질에 대한 걱정과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지닌다.

현재는 '세계화' 시대이다. 그래서 뉴 리바이벌 시대는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몫이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시대'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가 말하는 핵심개념인 '라이프스타일 미셔너리'(Lifestyle Missionary)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일반적



- 이창호 저(예수전도단, 2016)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전략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옛 부대가 되어서는 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부대로
 준비된 자들만이 그 전략을 받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임할 새로운 부흥의 시대는
 이런 새 부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이창호 「뉴 리바이벌」에서

으로 '선교사'라고 하면 제3국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섬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더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철실히 깨달았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선교사로서의 부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이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꼭 들어왔다. 각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현장이자 선교지인 가정, 일터, 회사,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전도자이자 선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비와 벌이 향긋한 꽃에 다가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답고 달달한 향기를 궁금해할 것이며 '저절로, 기꺼이'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꺼이'라는 부사어를 좋아한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라는 뜻이다. 성경의 역대하 말씀 중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성전 건축)에 동참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많은 레바논의 울창한 나무들을 베어 성전 건축에 협력한 '두로 왕 후람', 그가 보낸 만능 기술자 '후람', 성전 건축 일을 한 '외국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 때문에 '기꺼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영락다운 교회’와 ‘교회다운 교회’, ‘영락 교회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 우리는 후자에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뉴 리바이벌(새 부흥)’ 시대를 향해 성경적 교회,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도 방식에 있어서 복음의 절대적 진리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강하게 붙들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의 미래에서 ‘청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듯 청년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과거 안창호 선생님의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역사적 사상의 핵심을 품고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깨어있고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 소망, 사랑의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거룩하고 귀중한 세대이다.

오늘도 나는 여느 때와 같이 학원과 도서관 열람실에 간다. 이곳이 교회 밖 내 삶의 주된 터전이다. 그곳에서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온유, 겸손, 배려,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물론 가끔씩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크리스천다운 겉모습을 보이는 데에만 치중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가는 곳마다 ‘진심’으로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성찰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린도전서 3:6)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씨를 심는 이나 물주는 이에 불과할 뿐 그것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청년들을 포함해 모든 성도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다들 힘들다 다시 갑시다”이다. 거꾸로 읽어도 같은 글자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기를 바라며 행복한 다음 세대, 뉴 리바이벌 세대를 향한 독후감을 여기서 마친다. **만남**



김윤아 성도
청년부

마태, 그에게 부름은 은혜였다



신약성경에서 마태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세 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한 번씩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대부분은 제자 명단에 이름이 실린 경우다. 마태에 대한 다른 기록, 즉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과 그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것에 대한 서술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온다.

이 부름과 초대에 대응하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가복음에는 부름에 대한 서술이, 누가복음에는 부름과 초대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마태가 아니라 레위다. 이로 보아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의 두 이름인 것 같다.

그의 부름을 서술하는 부분(마 9:9; 막 2:14; 눅 5:27)을 보면, 그의 직업은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었다.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로마는 속국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로마가 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세리는 식민지배 세력을 등에 업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죄인과 동급으로 간주되었다. 말하자면 매국노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이 점은 마태가 예수를 위해 만찬을 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마 9:10; 눅 5:29)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마 9:11; 눅 5:30)했다고 예수를 비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마 9:12; 눅 5:31)고 하셨다. 이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눅 5:32; 마 9:13 참고)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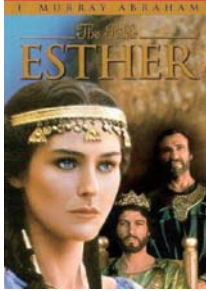
현대 영어 heal(치유하다)에 해당하는 고대 영어 동사는 hælān(완전하게 하다, 고치다, 치유하다)인데, 이것의 분사형인 hælende(완전하게 하는 이, 치유자)가 ‘구주’(Savior)라는 의미로 사용된 때가 있었다.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어 동사 소조(sz)의 의미 스펙트럼에도 ‘치유’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

당시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의 임무에 참여하며 그 임무를 이어갈 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 부름은 사람의 운명이 반드시 지금의 신분이나 행동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즉 병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만남**

-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 15일은 추석주일로 상영 안합니다.

MOVIE

9월의 상영작



에스더 (Esther, 1999)

감독 : 라파엘르 머테스 주연 : 루이스 롬바드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1시간 30분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1일



인도에서 구스(오늘날의 에디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아하수에는 즉위 3년이 되던 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다. 그는 180일 동안 나라의 부귀와 위엄을 나타낸 뒤,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7일째 되는 날, 그는 주흥에 겨워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어 왕명을 내리지만 유대출신 에스더 왕비는 거부한다.



8일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Detective K : Secret of Virtuous Widow, 2011)

감독 : 김석윤 주연 : 김명민, 오달수, 한지민
상영시간 : 1시간 55분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정조 16년, 공납 비리를 숨기려는 관료들의 음모를 짐작한 정조는 조선 제일의 명탐정에게 사건의 배후를 찾으라는 밀명을 내린다. 수사 첫날부터 각객의 습격을 받은 명탐정은 개장수 서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서필과 함께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각시투구꽃을 찾아 적성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선의 상단을 주름잡으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객주를 만나게 된다.



브루스 올마이티 (Bruce Almighty, 2003)

감독 : 톰 새디악 주연 : 짐 캐리, 모건 프리먼, 제니퍼 애니스톤
상영시간 : 1시간 40분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22일



신의 힘을 갖는 건 그야말로 신나는 일! 브루스는 뉴욕, 버펄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다. 재미있고 소박한 이웃들 애기를 단골로 맡아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별 볼일 없는 취재거리가 늘 불만이다. 곧 은퇴할 앵커의 후임이 되거나, 적어도 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전하는 게 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만인 그는 실새 없이 신에게 불만을 쏟아놓는다. 반면 유아원을 운영하는 브루스의 여자친구 그레이스는 매일매일 작은 일로 세상에 도움을 주려는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29일

에반 올마이티 (Evan Almighty, 2007)

감독 : 톰 새디악 주연 : 스티브 카렐, 모건 프리먼
상영시간 : 1시간 35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새집, 새 자동차, 사랑스러운 가족에, 국회의원 선거 당선까지 막힘없이 술술 일이 풀리던 에반. 기분 좋을 때 마다 추는 센스 제로의 댄스 실력과 살짝 소심한 것 빼고는 아무 문제 없던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매일 맞춰놓지도 않은 새벽 6시 14분에 알람이 울리고, 주문하지도 않은 목재, 망치, 못과 같은 공구가 배달되는 것. 실수려니 하고 넘어간 그 앞에 신이 나타나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방주를 세우라는 미션을 내린다. <브루스 올마이티>에 이어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나와 화제가 되었던 영화.





‘믿음의 근육’ 키워준 뜨거웠던 2박3일

제59회 산상기도회(1, 2차) 은혜 중 마쳐

총 등록인원 5,201명… 지난해보다 19% 늘어



제59회 산상기도회가 지난 7월 31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리 영락기도원에서 1, 2차로 나뉘어 각각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20일 간의 기도대각성 운동으로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우고 주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어진 1차 산상기도회는 2교구(강동·송파)와 3교구(성동·광진), 7교구(서대문·은평), 9교구(마포·영등포), 10교구(종로·성북), 11교구(노원), 14교구(인천), 15교구(성남·분당), 16교구(고양·파주) 성도와 타 교회 교인 등 2,011명이 등록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1차 기도회 첫날 개회예배는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김재완 장로가 기도하고 1차 산상기도회 강사이신 허원구 목사(부산장신대 총장)가 ‘열어주소서’(눅 24:44~4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기도회는 아침 ‘말씀에 붙잡혀’, 오전 ‘거룩한 멍에’, 저녁 ‘이 불을 끄지 말라’ 등의 제목으로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었으며, 셋째 날 기도회는 새벽 ‘성령에 이끌려’, 오전 ‘빈들에 희망’, 저녁 ‘믿음의 대행진’의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졌다.

칠레 선교사로 10년간 섬겼던 허 목사는 간간이 칠레어(스페인어)를 구사해 웃음을 자아냈다. 허 목사는 “성령에 이끌려 선택하고 결정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셔서 만남의 축복도 주신다. 삶이 빈 들과 같아도 꼭 찬 들을 예비하시고 ‘네가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할지 정리해주었다. 특히 신앙의 자세로 제시한 부산 사투리 ‘수그리’(겸손하기)와 성결, 정직, 멍에를 끝까지 메기 등을 통해 성도들은 귀한 영적 충전의 시간을 누렸다. 둘째, 셋째 날 오후 특강은 성경통독으로 진행되었다. 강승훈 목사와 조두형 목사의 인도로 옥중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과 목회서신(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을 통독했다.



제59회 산상기도회 통계

총 등록 인원 **5,201명**
(1차 2,011명, 2차 3,190명)

총 참석 연인원 **11,851명**
(1차 5,691명, 2차 6,160명)

총 식사 인원 **13,193명**
(1차 6,309명, 2차 6,884명)

총 봉사자 인원 **1,578명**
(1차 862명, 2차 716명)

날짜별 참가

1차	등록인원	식사인원	봉사자
7. 31	840	1,090	262
8. 1	794	2,632	260
8. 2	377	2,587	340
계(명)	2,011	6,309	862

2차	등록인원	식사인원	봉사자
8. 7	863	1,194	250
8. 8	1,272	2,871	241
8. 9	1,055	2,819	225
계(명)	3,190	6,884	716



8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2차 산상 기도회는 1교구(강남)와 4교구(중구·용산), 5교구(관악·동작·금천), 6교구(강서·구로·양천), 8교구(동대문·중랑), 12교구(강북·도봉), 13교구(서초), 17교구(안양·수원), 18교구(용인·화성) 성도와 타 교회 교인 등 3,190명이 등록했다. 2차 기도회 강사이신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담임)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 19:30~20:16) ‘양과 염소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화목사는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수고와 희생은 곧 사랑이다. 자기 중심성과 자아를 깨뜨려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상대의 허물들을 용서하며, 받은 대로 나누며, 희생 담긴 사랑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으로 큰 깨우침을 주었다. 한편 둘째 날, 셋째 날 오후 특강 성경통독은 1차 때와 동일한 성경 말씀으로 김형찬 목사와 전병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목양부 집계 결과 1, 2차 참석자는 모두 5,201명으로, 지난해의 4,387명에 비해 19% 늘었다. 2차 산상기도회

에는 참석자가 몰리면서 둘째 날 점심은 밥이 부족해 두 번을 더 하는 기쁜 수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1, 2차 기도회는 기도원 시설 및 비품들이 새롭게 정비되어 더욱 쾌적한 예배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풍으로 인한 비와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위 가운데 총괄총무부, 환경시설부, 교통안내부, 생활부, 조리부 등 각 부서에서 1,578명의 봉사자들이 굵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조그만 사고도 없이 은혜로운 봉사로 헌신했다. **만남**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조두진 집사





금년 산상기도회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강사 목사님의
열정적 설교, 봉사자들의 헌신적 섬김이 더해져 풍성한
은혜의 장이 되었다.



올바른 주차질서를 위한 영락캠페인

모연섭 안수집사
자원봉사부 총괄차장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성도들의 주차 문제로 하루 종일 열병을 앓습니다. 교회의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들과 외부 주차장에 차를 두고 오는 성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지만 교회 주차공간은 기념관 지하 250대를 비롯, 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대로의 긴 주차대기 행렬이 빚어내는 불편함으로 인해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5대 항목의 올바른 주차 질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기 위해 영락교회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주차공간 절대부족

- 지하 주차공간= 250대
- 2~4부 예배 출차= 각 100여대
- 2~4부 예배 주차 대기= 각 300여대
- ※ 2~4부 예배 시작 전 평균 120~200대의 대기차량으로 삼일대로 심한 정체

2

장기주차 문제

- 주차 피크타임= 2~4부 예배
- 현재 2개 예배 주차(4시간)= 120대
- 3개 예배 주차(6시간)= 70대
- ※ 주차회전율이 낮아 주차대기차량을 수용할 수 없음

3

잘못된 주차 문제

- 2개 주차 선에 걸쳐 주차
- 장애인구역주차(법적문제)
- 이면주차(혼란과 안전문제)
- 노상불법주차-교통방해

4

규칙 미준수 문제

- '주차차량 깜박이' 미준수
- '쓰레기투기 및 공회전 금지' 미준수
- '주차봉사자 지시' 미준수
- '대화예절' 미준수

영락인의 주차 5대 수칙

- 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② 외부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③ 장기주차 하지 않습니다
- ④ 주차 윤리와 규칙을 지킵니다
- ⑤ 대화예절을 지킵니다

광복절 74주년 기념예배 드려



광복 74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직전 주일이었던 8월 11일은 '광복주일'로 지키며 광복절 7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사무엘하 11:1~5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광복주일 설교를 통해 "한·일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현 상황이지만 차분히 우리의 실력을 키워 국력을 강하게 하자"고 역설하며 "자

신과의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성도들은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며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28차 영락청년 해외선교, 9월 중 러시아에서 펼친다

청년부(부장 김정훈 장로)는 9월 6일(금)부터 14일(토)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해외선교사역을 펼친다. 올해로 28차를 맞는 청년부 해외선교는 청년부 전담 최재선 목사가 인솔교역자로 참여한 가운데 팀장 김혜인 청년을 포함한 13명의 영락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부 해외선교팀은 청년회 파송 선교사인 조혜선 선교사가 사역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성삼위일체장로교회를 방문하고 현지에서 농장 환경개선 작업과 병원 위문공연 등을 펼칠 계획이며 귀국 길에는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에서 비전트립을 진행하고 귀국할 계획이다. 사진은 8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43차 국내하기선교, 28차 해외선교 발단식을 마치고.

제공 청년부

의료선교부 건강세미나 개최,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열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세미나가 지난 7월 28일(주일) 오후 2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의료선교부(부장 박일환 장로) 주관으로 열렸다. ‘귀한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이성우 교수(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가 강사로 나서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소생을 위한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신속한 처치를 위한 행동수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환자의 반응을 살핀 후, 신속히 119 신고를 해야 함을 아울러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은 흥분을 극시 압박하는 방법과 교회 내 비치된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실제적인 응급처치법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어린이를 위한 디즈니음악회와 마술쇼, 지역주민을 위한 선교의 장으로 열려

어린이를 위한 ‘디즈니음악회와 마술쇼’가 8월 13일(화요일) 저녁 8시 50주년기념관 1층 만남카페에서 한 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중구 마을공동체지원단 공동주최로 열렸다.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30·40 젊은 세대들과 어린 자녀들을 영락의 울타리로 초대하고 전도를 위해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3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교회 문화선교팀에서 ‘문화교실’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연주를 맡은 이번 공연은 평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Disney)의 ‘알라딘’, ‘라이언 킹’ 등의 인기 영화 주제곡들을 영상과 함께 연주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고, 문화선교팀 소속 황갑주 성도가 신기한 마술쇼를 펼쳐 참석한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약 3개월간 중구청과 함께 교회 내 많은 이들의 준비와 수고를 거쳐 열린 이번 공연을 통해 중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와의 첫 만남을 가지면서 한여름 밤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9월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다

- 본 교회 김순미 장로,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4회 총회가 9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시무)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다. 104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과 임원진을 새로이 선출할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 김순미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했다. 현재 여전 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장로는 총회 서기(99회기), 총회 회록서기(100회기), 총회 여성위원회 위원장(101~102회기), 한국기독교공보 이사(2012~2017) 등으로 섬기며 왕성한 교계 활동을 펼쳐왔다. 김 장로가 교단 부총회장으로 선출되면 한국 장로교 역사상 여성이 교단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편 지난 8월 4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김운성 목사가 김 장로의 교단 부총회장 입후보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통해 총회의 모든 일정이 은혜와 화평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간구했다.

박동진 목사 본 교회 사임

영락수련원을 맡아 사역해오던 박동진 목사가 캐나다 유학을 위해 지난 7월 31일자로 본 교회를 사임했다. 지난 2015년 본 교회 전임전도사로 부임한 박동진 목사는 2017년부터는 부서담당목사로 사역하며 용인·화성교구와 베들레헴찬양대, 영락수련원을 담당했다. 박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칼리지에서 영성신학을 연구할 예정이다.



9월 토요일음악회

토요일 오후 6시, 선교관

21일	시온찬양대 솔리스트 음악회
28일	더 프렌즈 인 크라이스트

토요일음악회는 크리스천 음악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연주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7월 7일~8월 11일)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7일	홍정은	10	009
7월 12일	김기영	09	030
	김유미	09	030
7월 14일	여운술	08	073
	서병해	04	014
	이성환	04	039
	김정봉	03	031
	지정섭	08	010
	민현기	04	039
	유진희	14	031
	박영진	10	061
	박금례	03	031
	박승옥	10	061
	이윤경	07	035
	안수영	10	025
	조인하	02	028
	한재성	10	038
	박현정	10	038
	배정윤	07	038
	송현우	07	038
	이성찬	07	019
	지현실	07	062
	김이현	10	031
	노여름	02	028
7월 19일	신지안	04	098
7월 21일	기소남	04	009
	김정애	05	059
	박재완	07	000
	유종성	10	029
	양지연	07	000
	이주영	07	000
	김분	07	000
	박지원	09	051
	김수민	09	065
	한민음	10	038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21일	이하준	04	008
	이하은	04	008
7월 28일	민옥순	14	004
	김영순	16	051
	이동철	05	042
	이선자	02	000
	조재현	04	048
	이승현	04	048
	최유선	06	060
	김종필	13	023
	최하원	16	060
	정낙원	10	000
	이근영	04	039
	최하진	10	000
	현은혜	06	054
	정성준	04	024
	안재하	08	021
	문하임	08	062
8월 4일	김순희	16	002
	안대식	02	056
	김정철	06	000
	한정임	06	000
	김해광	04	000
	노은주	04	000
	유수영	10	000
	최종환	10	000
8월 4일	김현철	08	015
	나철웅	09	053
	황보라엘	05	049
	이정현	03	000
	김지은	14	031
	박종빈	08	000
	조한나	02	014
	한지원	08	000
	최지아	13	044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8월 4일	이비사	09	057
	조은주	02	014
	송유나	16	060
8월 11일	안소자	03	000
	김춘식	03	000
	홍연숙	05	000
	현월숙	18	000
	이종선	03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8월 11일	홍석흥	05	000
	김남숙	05	000
	이재권	07	065
	장보석	03	000
	이용득	11	000
	왕예나	08	034
	신재윤	07	031
	왕하나	08	034

제5기 시부모&장인장모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적유산을 남기는 부모들의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은 부모(父母)라는 이름에서 완성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21일~10월 12일(매주 토요일/4주간) /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영락교회 봉사관 405호

인 원 40명(선착순 모집) - 현재 및 예비 시부모, 장인, 장모, 기존 수강생 및 타교회 성도 참여가능

회 비 3만원(교재, 문화산책, 식사 제공) - 우리은행 1005-201-610374 (예금주: 영락교회 상담부)

문의 상담부(봉사관 303호) ☎ 2280-0171 팀장 ☎ 010-3025-3295

강의내용 주제 : 인생의 세 가지 꽃 - 노화, 분화 그리고 영화(롬 8:30)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9/21(토)	9/28(토)	10/5(토)	10/12(토)
나이 들의 심리와 영성	회복을 위한 발돋움, 가족분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죽음	문화산책(영화관람)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엡 2:22)

2019년 제2남선교회 필리핀 해외선교



우물사역

교회 환경개선사역

미전도가정 방문전도사역

전도사역 (사진·안경·복음팔찌)

- ◆ 일시: 9월 9일 (월) ~14일 (토)
- ◆ 장소: 필리핀 까비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

목회력

9月

1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
6일(금)	연합권찰공부 하반기 개강
7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8일(주일)	제직회
15일(주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22일(주일)	사회봉사주일
27일(금)	심방준비회
29일(주일)	간증주일



편집장 레터

올여름도 어김없이 장마와 폭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캉스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풍성한 추석을 맞이한다.

누가복음 12장 16~21절에 '미련한 부자 이야기'가 나온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큰 풍년이 들어 창고가 모자랄 형편이었다. 속셈으로는 창고를 확장하여 그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그곳에 쌓아두리라고 생각했다.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나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세상의 안목으로 판단할 때에 자신의 수고와 생각이 대견하기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농부는 죽도록 수고했지만 먹거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야 한다.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리 그것이 생활필수품이요, 더없이 값진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숨겨 가져갈 수 없다. 그러기에 “네 생명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야고보의 답변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생명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야고보 4장 14절).” 로마의 철인(哲人)인 세네카도 “내일 일도 모르면서 일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성(靈性)이 깃든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류하고 있다. 영성의 발현은 하나님과의 교감이며,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내재하는 초월적 성품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갖춘 인간은 스스로의 자아(自我)를 크게 성숙시켜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므로 내일 일도 모르는 초로인생(草露人生)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생의 계획을 슬기롭게 세울 수 있다.

풍성한 중추절(仲秋節)을 맞이하게 되니 마음이 즐겁고 풍족하다.

편집장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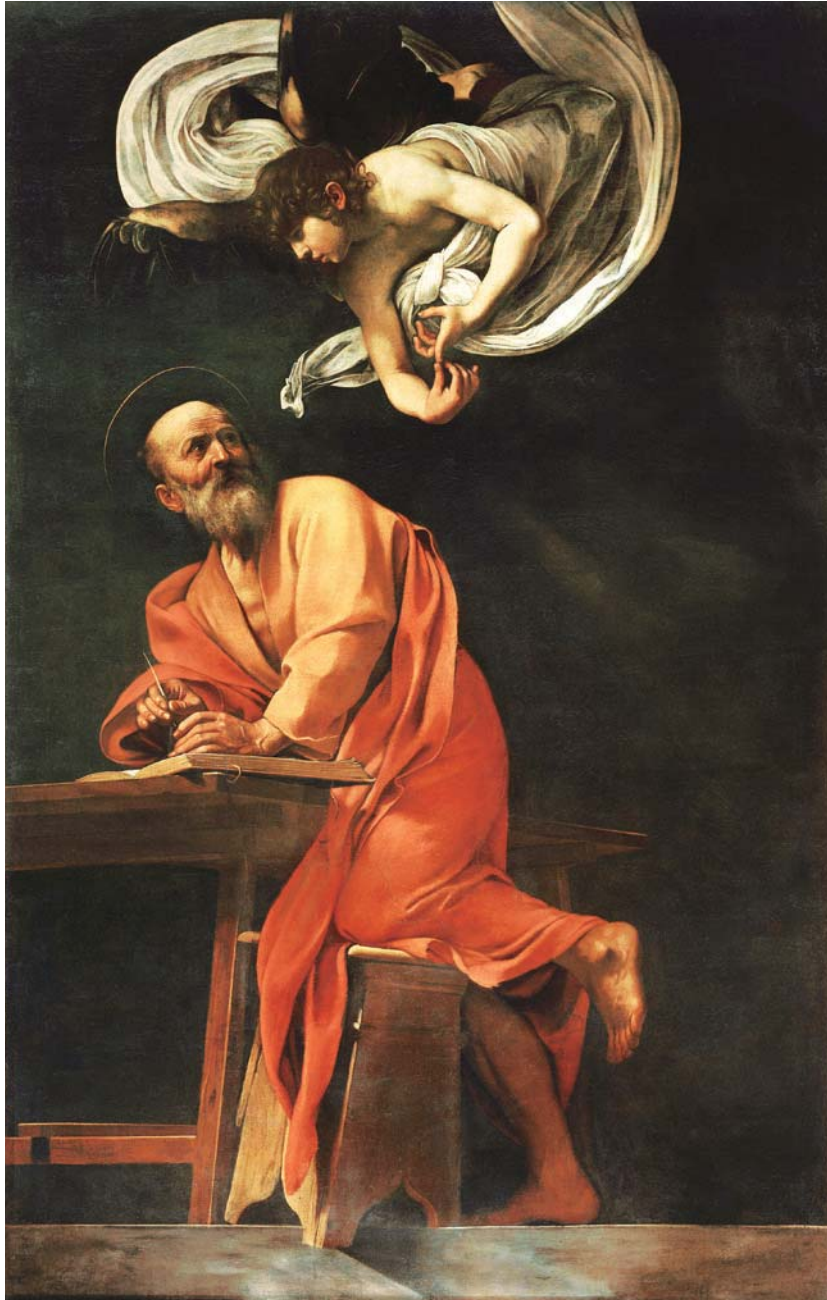
교회학교 예배안내



예 배		대 상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영 아 1 부 영 아 2 부 영 아 3 부	0~3세	09:30 ~ 10:30 11:30 ~ 12:30 13:30 ~ 14:30	영아부실(어린이집)
유 아 부	유 아 1 부 유 아 2 부 유 아 3 부 유 아 4 부	4~5세 4세 5세 4~5세	09:30 ~ 10:30 11:30 ~ 12:30 11:30 ~ 12:30 13:30 ~ 14:30	유아부실(유치원) 유치원 자모실 유아부실(유치원) 유아부실(유치원)
유 치 부	유 치 1 부 유 치 2 부 유 치 3 부	6~7세	09:30 ~ 10:30 11:30 ~ 12:30 13:30 ~ 14:30	유치부실 (50주년기념관 2층)
사 랑 부		발달장애인	09:30 ~ 11:00	교육관 1층
유 년 부	유 년 1 부 유 년 2 부	초등학교 1~2학년	09:30 ~ 11:00 11:30 ~ 13:00	50주년기념관 302호
초 등 부	초 등 1 부 초 등 2 부	초등학교 3~4학년	09:30 ~ 11:00 11:30 ~ 13:00	50주년기념관 604호
소 년 부	소 년 1 부 소 년 2 부	초등학교 5~6학년	09:30 ~ 11:00 11:30 ~ 13:00	교육관 4층
CebC		유·초·소년부 학생	14:00 ~ 15:20	교육관 4층
중 등 부	중 등 1 부 중 등 2 부	중학생	09:30 ~ 11:00 11:30 ~ 13:00	50주년기념관 4층
고 등 부		고등학생	09:30 ~ 11:30	50주년기념관 드림홀
대 학 부	대 학 부 베 드로 부	만27세이하 청년 대입재도전 응시생	13:00 ~ 16:00 08:30 ~ 10:30	50주년기념관 드림홀 50주년기념관 503호
청 년 부		만35세 이하 청년	13:00 ~ 16:00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

※ 문의: 교육부 ☎ 2280-0131)





카라바조(Caravaggio), 유화, 295×195cm, 1602

성 마태의 영감

The Inspiration of Saint Matthew

카라바조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San Luigi dei Francesi) 교회를 위해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 장면을 부탁받고 그림을 그렸다. 마태가 우아한 옷차림으로 글을 쓰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말씀을 불러주고 있다. 카라바조는 사실주의자로서 세리를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은 하층민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하층민인 마태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된 점과 함께 그 기록의 과정에서 '영감'보다는 직접적인 '개입'을 받은 점을 묘사하려한 것이다.